

경기침체와 청년 노동시장*

곽은혜**

본 연구는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서의 경기침체가 대졸 청년들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추정하고, 그 원인을 탐색한다.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경기침체가 존재할 경우 대졸 남성은 취업과 관련하여, 대졸 여성은 일자리 질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졸업 시점의 경기침체는 졸업 후 15년까지 대졸 남성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대졸 여성의 취업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경기침체 시 졸업한 여성은 첫 일자리가 일시적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고,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선 취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경제 전반의 불황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정책을 제언한다.

1. 머리말

경기침체는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하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기간 위축시킬 수 있다.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노동시장 내 경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노동시장 진입 시점의 경기침체는 단기적으로 고용의 양과 일자리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영향은 이후 노동시장 경력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경기침체가 존재할 경우 실제 경제주체의 고용 및 임금이 10년 이상 장기간 감소함을 보인 바 있다(Choi et al., 2020; Kahn, 2010; Schwandt and von Wachter, 2019 등).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직면하는 경기침체가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labor market outcome)에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청년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 이 글은 곽은혜(2021), 『경기침체와 청년·여성 노동시장』 중 제2장의 내용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ekwak@kli.re.kr).

진입 시점의 경기침체가 청년들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먼저 추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동시장 진입 당시 직면하는 경기침체가 향후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labor market outcome)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추정된 바 있고, 이들 연구는 국가·성·인종·학력별 영향력의 차이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해당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비슷한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노동시장 진입 시점은 최종 학력의 졸업 시점으로 간주한다. 그 시점은 경기에 따라 개인이 미루거나 앞당길 수 있으므로 시점상 내생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진학하는 대학 및 노동시장 진입 지역도 개인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지역 선택에도 내생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들은 주로 Kahn(2010)이 처음 제시한 도구 변수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Kahn(2010)은 1979년과 1989년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미국의 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졸업하는 해의 실업률이 향후 20년간 그들의 노동시장 성과(labor market outcomes)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논문에서 사용된 도구변수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계산한 졸업 예상 연도와 14세 때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한 실업률이다. Kahn(2010)의 결과에 따르면 실업률이 높을 때 대학을 졸업한 남성의 임금은 감소하고 이 부정적인 영향은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Schwandt & von Wachter(2019)의 연구는 데이터의 크기를 확장하여 성별, 인종별, 교육 수준별 이질적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백인보다는 다른 인종이, 고학력보다는 저학력 경제주체가 노동시장 진입 시점의 경기침체에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ltonji et al.(2016)은 1974~2011년 미국 대학 졸업자가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받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전공에 따라 살펴보았다. 소득이 평균보다 높은 전공(예컨대 도시공학, 회계학) 취득자는 평균 소득의 전공(언론학, 공학 기술) 취득자보다 소득 감소분이 절반 정도 적고, 소득이 낮은 전공(건강·영양학, 디자인·예술) 취득자는 더 큰 소득 감소를 보였다.

Genda et al.(2010)은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일본의 노동시장과 상대적으로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을 비교하였다. 이들 연구는 고학력보다는 저학력 남성들이, 미국보다는 일본 남성들이 받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였다. 일본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 진입 시점의 경기침체는 저학력 남성의 고용과 소득에 12년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비교해 미국 저학력 남성에게서는 일시적인 영향만 관찰되었다.

경직적 노동시장 분석과 관련하여 Cockx & Ghirelli(2016)의 연구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벨기에에서 경기침체기의 노동시장 진입이 학력별로 어떤 영향을 야기하는지 추정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벨기에의 노동시장은 진입과 이탈이 빈번하지 않은 경직적 노동시장에 해당한다. 저학력 경제주체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만 노동시간과 총소득이 최대 12년

동안 감소하였다. 이들의 시간당 임금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대체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학력 경제주체의 경우 노동시간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임금이 10년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 국가 외에 한국의 노동시장을 같은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나왔다. 먼저 Han(2018)은 2007년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Survey, 2007)를 이용하여 학력별로 졸업 시점의 실업률이 이후의 고용 및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1989~2014년 사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성과 여성의 소득은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을수록 감소하고, 이 영향은 10년 동안 지속된다. 대졸 남성은 대규모 기업에서 일할 확률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7년 동안 지속되었다. Choi et al.(2020)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1998~2010년 사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논문은 졸업하는 해에 경기가 좋지 않았을 경우 대졸 남성의 고용, 소득, 자산, 가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보인다.

본 연구는 경기침체가 한국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단기적, 장기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따랐고 같은 데이터로 대학 졸업자의 졸업 시점 경기침체의 영향을 살펴보았던 Choi et al. (2020)의 연구와 유사하다. 다만, Choi et al.(2020)의 연구에서보다 더 긴 졸업 연도를 고려하였고 졸업 당시 경기침체가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한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여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이를 위해 졸업 당시 경기침체가 청년들의 첫 일자리 특성, 전공-직업 일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졸업 시점의 경기침체로 인한 첫 일자리 특성의 차이가 노동시장 진입 시점 경기침체의 부정적 영향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되는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II. 졸업 시점 실업률이 청년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1. 데이터 및 분석 표본

첫 번째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22차(1998~2019년) 자료이다. 1차 자료에 포함된 5,000가구 중 개인 응답자 수는 13,321명, 2009년 조사된 6,721가구 중 개인 응답자 수는 14,489명, 2018년 조사된 12,134가구 중 개인 응답자 수는 23,972명이다. 분석 표본은 졸업 연도가 1989년 이후인 대학 졸업자이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표본에서 제외한다. 최종 학력의 졸업 연령을 데이터에 주어진 정보로 계산하였을 때 만 36세를 초과하는

경우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교육력과 관련한 질문을 가구용 설문과 개인용 설문 모두에서 제공하고 있다. 개인용 설문에서 응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학교 졸업 연도를 계산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국가 실업률을 졸업 연도와 매칭하여 졸업 시점의 실업률 변수를 생성한다. <표 1>은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개인 특성을 보여주는 요약통계이다. 분석 표본에 포함된 여성과 남성의 태어난 해는 각각 평균 1979.6년, 1976.8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3세 어리다. 아버지 학력 및 14세 무렵의 경제 상황이 포함된 가족 배경(family background)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표본 내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표 2>는 결과 변수(outcome variable) 요약통계이다. 취업 여부는 임금 근로와 비임금 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 당시 근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여성은 55% 남성은 92%가 취업 상태에 있다. 미취업자의 근로시간을 0으로 두고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여성은 주당 22.36시간, 남성은 주당 42.47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상당 부분이 미취업 상태이기 때문에 남성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취업자 근로시간 평균을 살펴보면 여성은 41.03시간 남성은 46.12시간으로 여전히 남성의 주당 근로시간이 많지만, 그 격차는 미취업자를 포함했을 때보다 크지 않다. 근로소득은 월소득과 시간당 임금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소득은 211.45만 원이고 남성은 327.8만 원으로 남성의 월소득

<표 1> 개인 특성 요약통계

| | | 여 성 | | | 남 성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표본 수 | 평균 | 표준편차 | 표본 수 |
| 생년 | | 1979. 6 | 6.78 | 2,379 | 1976. 8 | 7.37 | 2,447 |
| 졸업 당시 나이 | | 22.9 | 2.27 | 2,379 | 25.03 | 2.58 | 2,447 |
| 4년제 졸업 비중 | | 0.57 | 0.5 | 2,379 | 0.67 | 0.47 | 2,447 |
| 졸업 연도 | | 2002. 5 | 6.76 | 2,379 | 2001. 9 | 7.08 | 2,447 |
| 졸업 연도의 실업률(%) | | 3.74 | 1.23 | 2,379 | 3.66 | 1.27 | 2,447 |
| 졸업 후 경과 연도(년) | | 7.69 | 5.55 | 2,379 | 7.78 | 5.43 | 2,447 |
| 아버지 학력 | 대졸 이상 | 0.16 | 0.36 | 2,352 | 0.13 | 0.34 | 2,413 |
| | 고졸 및 전문대 | 0.50 | 0.5 | 2,352 | 0.43 | 0.5 | 2,413 |
| 14세 무렵 | 경제상황 좋은 편 | 0.18 | 0.38 | 2,201 | 0.15 | 0.36 | 2,256 |
| | 경제상황 안 좋은 편 | 0.19 | 0.39 | 2,201 | 0.22 | 0.42 | 2,256 |

주: 아버지 학력과 14세 무렵 경제상황은 각 학력과 상황에 해당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2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경제활동 관련 변수 요약통계

| | 여 성 | | | 남 성 | | |
|----------------|--------|--------|--------|-------|--------|--------|
| | 평균 | 표준편차 | 표본 수 | 평균 | 표준편차 | 표본 수 |
| 취업 여부 | 0.55 | 0.5 | 15,539 | 0.92 | 0.27 | 16,616 |
| 주당 근로시간(미취업=0) | 22.36 | 21.97 | 15,530 | 42.47 | 16.5 | 16,607 |
| 주당 근로시간(취업자만) | 41.03 | 10.93 | 8,463 | 46.12 | 11.26 | 15,290 |
| 월소득 | 211.45 | 131.11 | 8,093 | 327.8 | 210.84 | 15,010 |
| 시간당 임금 | 1.27 | 1.12 | 8,090 | 1.73 | 1.19 | 15,001 |

주: 취업 여부는 임금 근로와 비임금 근로를 모두 포함한 비율을 나타냄. 월소득과 시간당 임금은 취업자만 포함하고, 단위는 모두 만 원임. 임금 변수는 2015년 기준 실질임금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2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 100만 원 이상 많다. 시간당 임금은 여성 1.27만 원 남성 1.73만 원이다. 시간당 임금은 월 소득을 4.35로 나누어 주당 소득을 구하고 주당 소득을 다시 주당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임금 변수는 2015년 기준 실질임금이다.

2. 분석 모형

실증분석의 목적은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경기침체를 경험한 청년들의 경제활동 및 소득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보다 더 낮은지 추정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 시점은 최종 교육을 마치는 시점이고, 이때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거시경제 변수는 실업률을 사용한다. 대학을 졸업한 해에 실업률이 높았던 청년들은 실업률이 낮았던 청년들보다 경제활동이나 근로소득 측면에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의 추정식을 이용한다.

$$y_{i,t} = \alpha + \beta_e UR_i + X'_{i,t} \gamma + f(g) + \delta_e + \lambda_r + \tau_t + \epsilon_{i,t} \quad (1)$$

하첨자 i 는 개인을 나타내고 t 는 조사연도를 나타낸다. 좌변은 노동시장 성과 변수로 취업 여부와 근로소득 중 하나의 변수를 취한다. UR_i 는 i 가 대학을 졸업한 해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실업률은 졸업하는 해와 졸업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간과 지역에 따른 변화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른 변화는 제외하고 국가 전체의 실업률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의 실업률을 사용하여 대학 졸업 후 지역 선택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졸업 시점의 실업률을 사용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은 학생들이 실업률 높은 시기에 졸업하는 것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졸업을 미루는 행위가 랜덤하게 일어난다면 문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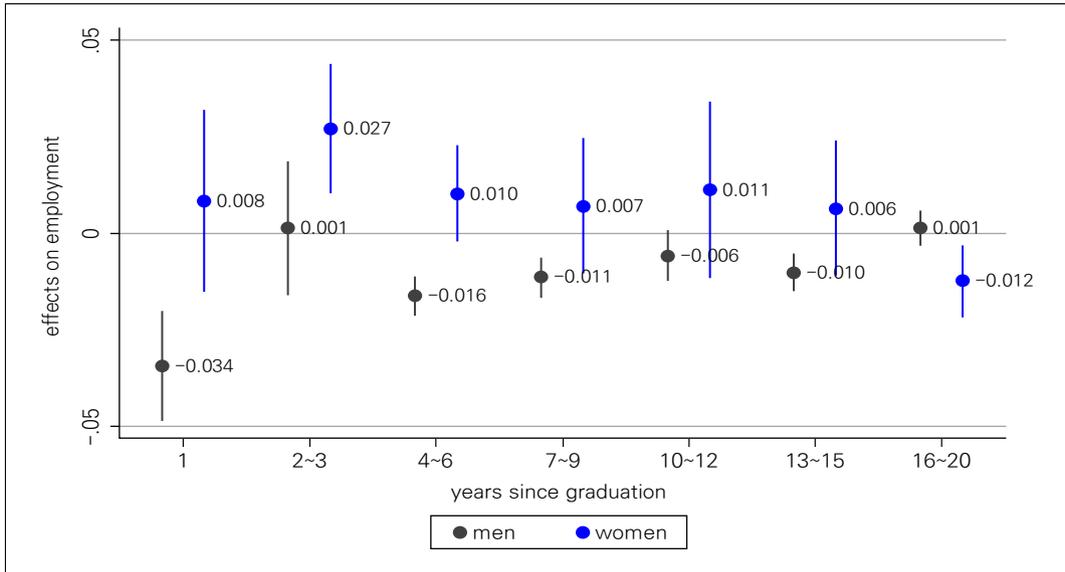
없을 것이지만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실업률 높을 때 졸업하기를 특히 더 꺼려 한다면 졸업 당시의 실업률에 내생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Kahn(2010)이 제안한 도구 변수(예상 졸업 연도에서의 실업률)를 이용한 추정 방법을 동시에 이용한다. Choi et al.(2020)은 본 연구에서와 같은 데이터(KLIPS)를 이용하여 대졸자의 졸업 당시 실업률이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위 논문에서는 OLS 추정 결과를 주요 결과로 제시한다. 그리고 밸런스 체크(balance check)를 통해 졸업 당시 국가 실업률과 개인 특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고, 도구 변수를 이용한 추정을 하여도 같은 방향의 결과를 얻었다는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결과를 덧붙였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데이터와 국가 실업률을 거시경제 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OLS를 통해 추정된 결과가 선택 편의에 의해 견인된 결과가 아니라는 Choi et al.(2020)의 결과를 수용하여 졸업 당시 국가 실업률의 내생성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β_e 는 졸업 후 경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졸업 시점 실업률의 영향을 나타낸다. 졸업 후 경과 연도는 졸업 후 1년, 2~3년,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0년으로 7개의 그룹을 만들었다. 따라서 두 번째 항은 졸업 후 경과 연도를 나타내는 7개 각각의 더미변수와 졸업 시점의 실업률 교차항을 의미하고, β_e 는 7개 각 교차항에 해당하는 계수이다. δ_e 는 졸업 후 경과 연도를 나타내는 7개의 더미 벡터이다. 졸업 후 경과 연도를 나타내는 더미 벡터를 포함함으로써 β_e 는 졸업 당시 실업률이 1%p 높아질 때 졸업 후 경제활동 및 소득 궤적이 기준 궤적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추정하게 된다. 이 밖에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를 통제하기 위해 졸업 연도의 3차 함수 $f(g)$ 를 포함하고, 개인 특성($X_{i,t}$)을 통제하기 위해 최종 학력(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당시 나이와 나이 제곱, 아버지 학력(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이상),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을 포함하였다. 아버지 학력과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은 성장기 가족 배경(family background)을 나타내는 변수로 포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 시점 당시의 거주지역(λ_i)과 조사연도(τ_t) 고정 효과가 포함되었다.

3. 졸업 시점 실업률이 청년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그림 1]은 대학 졸업 남성과 여성의 최종 학력 졸업 시점에서의 실업률이 향후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취업 여부는 임금 근로와 비임금 근로를 모두 포함한다. 먼저, 남성의 결과를 살펴보면 졸업하는 해의 실업률이 1%p 높은 경우 졸업 첫해 취업 가능성이 3.4%p 감소한다. 졸업 후 2~3년 사이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4년째부터 다시 취업 가능성이 낮아진다. 즉, 졸업 당시 경기침체는 대학 졸업 남성의 취업 가능성을 낮추고 그 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들지만 졸업 후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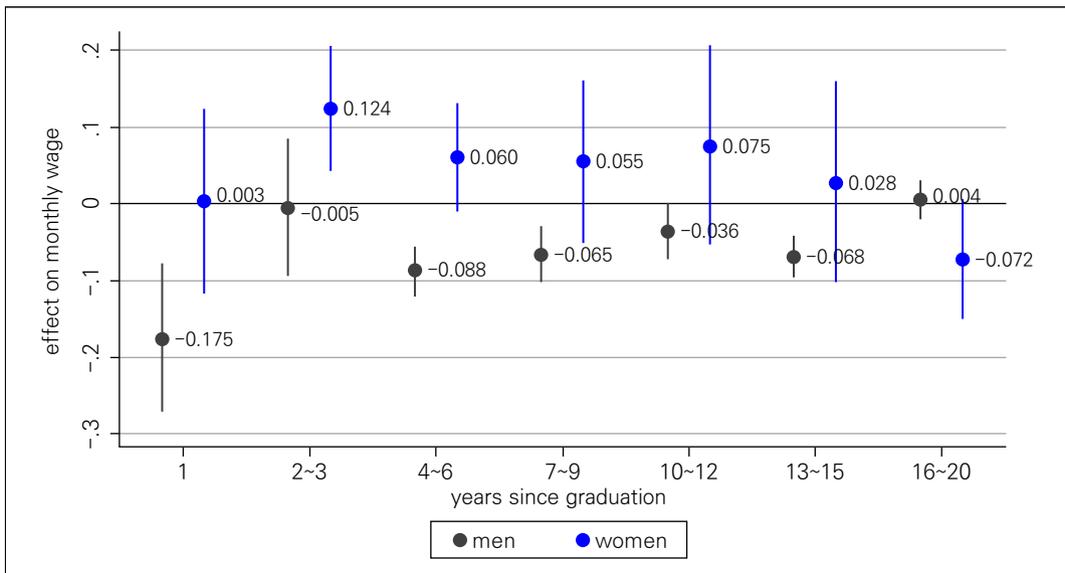
[그림 1] 졸업 연도 실업률이 대학 졸업자 취업에 미치는 영향



주: x 축은 졸업 이후 경과 연도를 나타내고, y 축은 졸업 연도 실업률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계수값을 나타냄. 90%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2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졸업 연도 실업률이 대학 졸업자 월소득에 미치는 영향(미취업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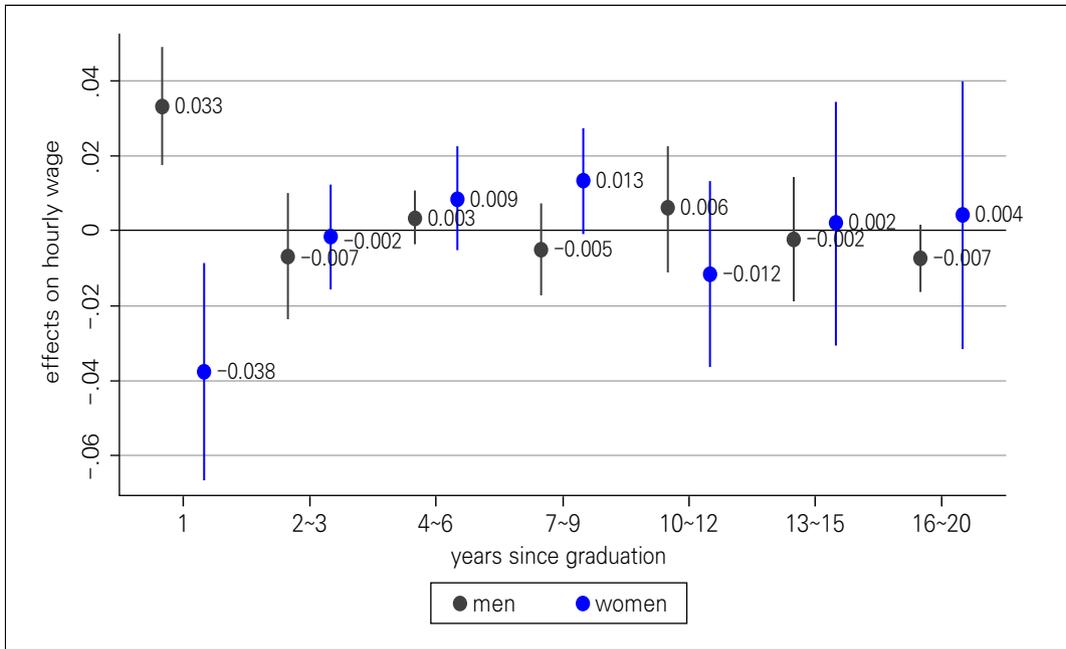
주: x 축은 졸업 이후 경과 연도를 나타내고, y 축은 졸업 연도 실업률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계수값을 나타냄.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모두 포함한 결과이고, 미취업자 소득은 1로 포함함. 소득은 2015년 기준 실질임금이며 자연로그를 취함. 90%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2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 추세는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Choi et al.(202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여성 취업의 경우 대체로 졸업 당시 경기 변동의 영향이 없으나 졸업 당시 높은 실업률은 여성 대학 졸업자의 졸업 후 2~3년 사이 취업 확률을 2.7%p 높이고 이 영향은 이후 사라진다. 졸업 16~20년 사이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았던 여성의 취업 확률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소폭 낮아진다.

다음은 졸업 당시 경기침체가 월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그림 2 참조). 분석은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였고, 미취업자 소득은 1만 원(로그값 0)으로 포함하였다¹⁾. 졸업 시점 경기침체가 월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미취업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취업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모양을 보인다. 대졸 남성의 경우 졸업 시점 실업률이 1%p 증가할 때 졸업 후 첫해 월소득이 17.5% 감소한다. 이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에 따라 점차 줄어들지만 졸업 후 15년까지도 이어진다. 대졸 여성의 경우 졸업 당시 실업률이 1%p 증가할 때 졸업 후 2~3년 사이 월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시기에 나타난 취업 확률 증가에 기인한 결과이다.

[그림 3] 졸업 연도 실업률이 대학 졸업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영향(미취업자 제외)



주: x축은 졸업 이후 경과 연도를 나타내고, y축은 졸업 연도 실업률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된 계수값을 나타냄. 90%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모두 포함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2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취업자 중 월소득이 1만 원 미만인 사람은 없다.

마지막으로 취업자 사이에서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졸업 당시 경기침체가 취업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림 3]의 결과를 보면 졸업 연도 실업률이 1%p 증가할 때 대졸 남성 취업자의 졸업 후 첫해 시간당 임금은 3.3% 증가한다.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을수록 졸업 후 첫해 취업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취업에 성공한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취업이 어려운 시점에 취업에 성공한 남성들이 가지는 선택편의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첫해 이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다. 남성과 달리 경기침체에 졸업한 대졸 취업 여성은 졸업 후 첫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만 이는 그다음 해부터 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Ⅲ. 졸업 시점 실업률이 첫 일자리 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졸 남성은 졸업 시점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졸업 후 15년까지 장기간 취업 및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반면 여성은 경기침체에 졸업을 하여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취업 및 소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첫 일자리 특성에 그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졸업자의 첫 일자리 특성과 전공-직업 일치 정도를 보기 위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는 졸업 시기, 첫 일자리 고용 형태, 취업 및 이직 시기, 산업, 일의 형태 등 첫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층 부가조사는 2017년부터 만 15세~만 34세까지의 청년층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전 조사에서는 만 29세까지가 조사 대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만 29세까지의 청년들을 분석한다. 분석 표본은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위의 분석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기 위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원 교육을 마친 사람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에 포함된 청년들의 대학 졸업 시점은 1995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평균적인 졸업 연도는 남성 2009년, 여성 2008년이다.

먼저, 분석에서 살펴볼 내용은 졸업 당시 실업률이 첫 일자리의 구직과 고용 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이다. 첫 일자리 구직기간은 졸업 연도와 첫 일자리 시작 연도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첫 일자리 고용 기간은 첫 일자리가 일시적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일시적 일자리인 경우 1의 값을 가지고, 계약 기간

이 없이 계속 근무가 가능하거나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기본적인 분석 방법은 위와 같고, 졸업 당시 실업률 외에 통제된 변수는 졸업 당시 나이, 졸업 당시 나이의 제곱, 졸업 연도의 세계급 함수, 6개의 전공계열 더미²⁾, 4년제 대학 여부, 조사 시점이다.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남성의 평균 구직기간은 0.31년이고 여성은 0.19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긴 첫 직업 구직기간을 가진다. 남성 표본이 여성보다 더 작은 이유는 표본의 나이를 20대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졸업 당시 실업률이 1%p 증가할 때 남성의 첫 직업 구직기간은 0.096년(평균의 30.7%) 증가한다. 반면 여성의 첫 직업 구직기간은 졸업 당시 실업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남성에게서만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났던 앞선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첫 직장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실업률이 높을 때 졸업한 여성은 첫 일자리가 일시적일 확률이 증가한다. 첫 직장 구직기간과 달리 일시적 일자리 여부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표본평균을 보인다(남성 32%, 여성 33%). 졸업 당시 실업률이 1%p 상승할 때 남성의 일시적 일자리 여부에는 영향이 없지만 여성은 일시적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1.3%p 증가한다. 대졸 여성의 고용은 노동시장 진입 시점의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경기침체에 졸업한 대졸 여성이 일시적 일자리라도 가지며 고용 충격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졸업 시점 실업률이 첫 직장 구직기간과 고용 형태에 미치는 영향

| | 구직기간 | | 일시적 일자리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실업률 | 0.096 ** (0.043) | -0.000 (0.014) | -0.003 (0.005) | 0.013 ** (0.006) |
| 평균 | 0.313 | 0.185 | 0.319 | 0.328 |
| 표본 수 | 8351 | 18247 | 16055 | 29216 |

주: 표본은 대학을 졸업한 만 29세까지의 청년임. 졸업 당시 실업률 외에 졸업 당시 나이, 졸업 당시 나이의 제곱, 졸업 연도의 세계급 함수, 6개의 전공계열, 4년제 대학 여부, 조사 시점이 포함되었음. 평균은 종속변수의 표본평균을 나타냄. 구직기간 평균 단위는 년, 일시적 일자리 평균은 해당 비율임. 졸업 연도 단위의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는 괄호 안에 제시함.

* p<0.10, ** p<0.05, *** p<0.0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5-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은 첫 일자리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전공-직업 일치 정도를 종속변수로 고려하였다. 먼저,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전공-직업 일치 정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응답자는 현재 직업에 대해 전공과의 일치 정도를 4점 척도로 응답한다. '매우 불일치'와 '불일치'라고 응답한 경우 전공-직업 일치가 안 된 것으로, '일치' 또는 '매우 일치'라고 응답한 경우 전공-직업

2)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사범계열, 농수산계열 및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일치가 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전공-직업 매칭은 현재 직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일자리에서 전공과 직업의 일치 정도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표본을 20대 대졸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커리어 초반의 전공-직업 일치 정도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한 종속변수는 첫 직장을 이직한 사유가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과 불일치해서인 경우이다. 첫 일자리에서 전공-직업 일치 정도를 직접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직 사유를 통해 실업률이 높을 때 졸업한 청년들이 전공, 직업 불일치를 이유로 첫 일자리를 이직하는 확률이 높아지는지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4〉는 전공-직업 일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 3〉의 분석과 동일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였고 전공-직업 일치 모형에서는 현재 나이와 나이 제곱, 졸업 후 현재까지의 취업 횟수를 추가로 통제하였다. 전공-직업 일치는 현재 직업을 기준으로 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남성의 54% 여성의 60%가 현재 직업에서 전공-직업이 일치한다고 응답하였다. 첫 일자리 이직 사유가 전공 불일치인 경우는 남성 표본의 9.3%, 여성 표본의 7.6%이다.

실업률이 높을 때 졸업한 남성은 20대 후반 전공-직업 일치 확률이 높아지지만 여성에게는 영향이 없다. 졸업 당시 실업률이 1%p 높아질 때 20대 후반 남성이 전공-직업 일치 직업을 가질 확률은 2.7%p(평균의 5%) 높아진다. 반대로 졸업 당시 실업률이 전공 불일치로 첫 직업을 그만 둘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게서만 나타난다. 졸업 당시 실업률이 1%p 증가할 때 여성의 첫 직장 이직 사유가 전공 불일치일 확률은 1%p(평균의 13.2%) 증가한다.

〈표 4〉 졸업 시점 실업률이 전공-직업 일치에 미치는 영향

| | 전공-직업 일치 | | 이직 사유 : 전공 불일치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실업률 | 0.027*** (0.006) | -0.002 (0.007) | -0.002 (0.004) | 0.010*** (0.003) |
| 평균(비율) | 0.538 | 0.596 | 0.093 | 0.076 |
| 표본 수 | 16720 | 30176 | 8591 | 18726 |

주 : 표본은 대학을 졸업한 만 29세까지의 청년임. 졸업 당시 실업률 외에 졸업 당시 나이, 졸업 당시 나이의 제곱, 졸업 연도의 세계 공급 함수, 6개의 전공계열, 4년제 대학 여부, 조사 시점이 포함되었음. 현재 직업의 전공-직업 일치 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처음 두 개의 열) 현재 나이, 나이 제곱, 졸업 이후 취업 횟수를 추가로 통제하였음. 이직 사유는 첫 직장 이직 사유를 의미함. 평균은 종속변수의 표본평균임. 졸업 연도 단위의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는 괄호 안에 제시함.

* p<0.10, ** p<0.05, *** p<0.01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5~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노동시장 진입 당시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남성은 커리어 초반 전공-직업 일치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고, 여성의 첫 일자리는 전공-직업 불일치의 확률이 높아진다. 〈표 3〉에서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서 경기침체가 있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전공이 일치하

지 않는 직업일지라도 일단 취업을 하려는 경향이 더 크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 시점의 경기침체가 여성의 고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남성의 고용에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침체에 졸업한 남성은 첫 직장 구직기간이 길어지지만 취업자의 전공-직업 일치 확률은 오히려 증가한다. 노동시장 진입 시점의 경기침체는 남성의 고용에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에 성공한 남성들은 오히려 전공 일치 직업을 더 가지는 경향이 있고, 첫 직장에서의 고용기간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기침체에 졸업할수록 취업이 어려울 것이므로 취업에 성공한 대졸 남성들에게 선택적 편의(composition bias)가 존재했을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첫 직장 구직기간은 졸업 당시 실업률이 증가하며 길어지는데, 길어진 구직기간이 더 좋은 직업 매칭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

경기침체에 졸업한 대졸 남성은 첫 직업 구직기간이 길어지지만, 첫 직업 특성이 취업에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견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랜 기간 남성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침체 시기에도 청년 남성들이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초기에 길어진 구직기간이 이후 구직에 낙인효과(scarring effect)로 작용했을 수 있다. 반면 경기침체에 졸업한 여성은 첫 일자리에서 짧게 근무하고, 첫 직업이 전공과 일치하지 않을 확률도 커진다. 이는 경력 초반 인적자본 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청년 여성이 경기침체에 졸업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커리어 초반의 인적자본 축적이 더뎠을 수 있다.

IV. 결론 및 정책제언

경기 변동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겪게 되는 외생적 충격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이러한 외생적 충격에 취약하고, 그 부정적 영향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정책은 실효성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청년들은 본인의 선택이나 능력과 상관없는 시장의 부정적 상황으로 인해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청년 남성은 고용과 관련하여, 청년 여성은 일자리 질과 관련하여 특히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함을 본문의 분석 결과는 보여준다. 이는 경기침체에 청년들의 경력 개발을 위한 정책이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 자사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업훈련의 종류와 질이 기업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는 청년들이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직업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훈련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개인 주도형 일·학습 병행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가 확대된다면, 경력 초기에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업 및 일시적 취업으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과 낙인효과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기에 졸업한 대졸 여성들은 전공-직업 불일치로 첫 일자리에서 이직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교육 기간 중이거나 경력 초기 상태인 여성에게 경력 개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적합한 경력을 추천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첫 일자리 이후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도 연결성 높은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서비스를 통해 고학력 비정규직, 저숙련 일자리 취업 여성을 중심으로 우수 중소기업, 미래산업 수요에 필요한 일자리로의 연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전에 양질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질이 낮은 일자리는 노동시장 기회비용이 낮아 결혼이나 출산 후에 자발적 경력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LI**

[참고문헌]

곽은혜(2021), 『경기침체와 청년·여성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Altonji, J. G., L. B. Kahn, and J. D. Speer(2016), “Cashier or Consultant? Entry Labor Market Conditions, Field of Study, and Career Succes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 pp.361~401.

Choi, E. J., J. Choi, and H. Son(2020), “The Long-Term Effects of Labor Market Entry in a Recession: Evidence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Labour Economics*, 67.

Cockx, B. and C. Ghirelli(2016), “Scars of Recessions in a Rigid Labor Market,” *Labour Economics*, 41, pp.162~176.

Genda, Y., A. Kondo, and S. Ohta(2010), “Long-Term Effects of a Recession at Labor Market Entry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5, pp.157~196.

Han, J.(2018), “Long-Term Effects of Labour Market Entry Conditions: The Case of Korea,” *Global Economic Review*, 47(4), pp.434~463.

Kahn, L. B.(2010), “The Long-Term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Graduating from College

in a Bad Economy,” *Labour Economics*, 17, pp.303~316.

Schwandt H. and T. Von Wachter(2019), “Unlucky Cohorts: Estimating the Long-Term Effects of Entering the Labor Market in a Recession in Large Cross-Sectional Data Set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7, pp.161~198.